

'5강 싸움' 삼성-롯데, 정면승부

프로야구 주간 동향... '선두 추격' 한화, 운명의 8연전

정규시즌 막판 포스트시즌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정면 승부를 벌인다.

삼성과 롯데는 16~17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2연전을 치른다.

중위권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15일 현재 삼성이 66승 2무 65패로 5위, 롯데가 64승 6무 64패로 0.5경기 차 뒤진 6위다.

잔여 경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7승 1무 5패로 앞서있다. 롯데는 2연전 중 한 판만 이겨도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해 삼성과 승률까지 갈아질 경우 더 높은 순위로 오를 수 있다.

다.

8월초 연패를 거듭하며 8위까지 떨어졌던 삼성은 8월15일 시작 롯데전부터 31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까지 15경기에서 1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자랑해 다시 가을야구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그러나 9월 이후 치른 8경기에서 3승 5패로 주춤했다. 특히 이달 10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부터 13일 대구 KT 위즈전까지 3연패를 당했다.

8월 중순 이후 삼성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불펜진이 크게 흔들렸다. 3연패 기간 삼성의 불펜 평균자책점이 14.14에 달했다. 11일 SSG 랜더스전과 13일 KT전에서 연달아 역전패를 당했다.

삼성 14일 대구 KT전에서 6-2로 승리를 거두며 일단 한숨을 돌렸다.

가을야구에서 멀어지는 듯 했던 롯데도 11일 광주 KIA전, 13일 시작 SSG전을 내리 이기면서 다시 가을야구를 향한 희망을 살렸다.

롯데는 선발 투수진이 고민이다. 토종 에이스 박세웅이 기복있는 모습을 보이고, 외국인 에이스 일렉 감보아도 최근 2경기에서 부진했다. 새 외국인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는 KBO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삼성과의 2연전에서는 박세웅과 감보아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외의 외국인 타자 트윈 디아즈는 외국인 타자 최초 단일 시즌 50홈런 도전을 이어간다.

디아즈는 14일 대구 KT전에서 시즌 46호 홈런을 날려 50홈런에 한 발 더 다가갔다. 홈런 4개를 추가하면 2015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이었던 박병호(현 삼성) 이후 10년 만에 단일 시즌 50홈런을 달성하게 된다.

선두 LG를 3.5경기 차로 추격 중인

한화는 운명의 8연전을 벌인다.

한화는 비로 취소된 12일 대전 키움 히어로즈전이 15일로 편성되면서 13일부터 20일까지 8연전을 치르게 됐다.

LG의 정규시즌 1위 확정 매직넘버가 7까지 줄어든 상황이지만 한화에게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한화는 15일 키움과 대전에서 시즌 마지막 대결을 펼치고, 16~18일 광주에서 KIA와 만난 후 수원으로 이동해 19~20일 KT를 상대한다.

시즌 막판 체력 소모가 심한 상황에서 8일 연속 경기를 펼치는데다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다.

한화는 이 고비를 넘어야 이달 26~28일 LG와의 홈 3연전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

추격을 받는 LG는 최근 하락세지만, 다음주 4경기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라 다소 여유가 있다. LG는 선발로 뛰던 송승기를 불펜으로 돌려 뒷문을 강화했다. /뉴스



북전주농협과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FC가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사진=북전주농협 제공)

농가 소득·소비자 만족 농업과 축구가 만났다

전북현대·북전주농협, 추석 프리미엄 선물세트 출시

북전주농협이 올 추석을 앞두고 프로축구단 전북현대모터스FC와 손잡고 특별한 명절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지역 농산물의 신선함과 명문 구단의 상징성을 결합한 '추석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농협몰을 통해 사전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이번 협업은 지역 농협과 프로스포츠 구단이 함께 기획한 이례적인 사례로, 단순한 명절 선물뿐 아니라 농업과 스포츠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상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선물세트에는 멜론과 사인머스캣 등 엄선된 제철 농산물이 담겼다. 여기에 전북현대 구단의 로고와 슬로건을 적용한 전용 패키지와 감사 카드가 더해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농업과 스포츠가 만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농협이 농협몰을 기반으로 외부 기관과 협업해 전국 단위 사전예약 상품을 선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번 기획은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면 되는 '특별한 선물'로서의 만족을 더할 수 있는 새로운 실험으로 주목된다.

이우광 북전주농협 조합장은 "이번 협업은 지역 농산물을 스포츠 팬과 연결하는 획기적 시도"라며

"농가 소득 증대, 소비자 만족, 농협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협은 지역 농업을 넘어 문화와 스포츠까지 아우르는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전주농협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는 29일부터는 오프라인 매장인 하나로마트에서도 해당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판매 전략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감사와 정성을 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농업과 스포츠라는 전혀 다른 영역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역 농민들에게는 판로 확대라는 실질적 혜택이, 소비자들에게는 농촌의 정성과 스포츠의 열정이 결합된 차별화된 선물이 주어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는 이번 협업이 젊은 세대에게 농산물을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소비가 스토리와 감성을 담아낼 때 경쟁력이 생긴다"며 "이번 북전주농협과 전북현대FC의 도전은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북전주농협과 전북현대FC의 만남이 올 추석,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풍성한 결실을 안겨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상근 기자

2025 진안홍삼축제 축구팬에게 알렸다

진안군, 전북현대 경기서

진안군의 날' 성황 운영

진안군(군수 전준성)은 지난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진안군의 날'을 운영하며 '2025 진안홍삼축제'를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장을 찾은 2만3,000여명의 관중과 TV 중계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진안홍삼축제의 매력을 소개하고, 진안군을 널리 알렸다.

경기장 입구부터 진안홍삼축제의 홍보 열기가 '후끈'했다.

경기 시작 전인 오후 5시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 동문 입구에 설치된 진안홍삼축제 홍보부스에서는 홍삼액 시음회와 '3초를 잡아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많은 축구팬들이 부스를 방문해 축제 정보를 확인하고, 시음과 이벤트를 즐기며 축제 분위기를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는 주영환 진안부군수와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이 직접 참여해 시민들에게 축제를 홍보하며 관심



지난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모터스와 대전하나시티즌의 경기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현대 선수단, 주영환 진안부군수와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진안군청 제공)

을 당부했다. 또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진안홍삼축제의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경기 시작 직전에는 주영환 부군수와 동창욱 의장이 선수단을 격려하고 그라운드에서 시축에 나서 '진안군의 날'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

이어 진안군 유소년축구회원 22명이 '에스코트 키즈'로 참가해 전북현대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며 관중들의 환

호를 받았다.

하프타임에는 전광판을 활용한 '진안군 키즈 이벤트'가 펼쳐졌다. 진안군과 진안홍삼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맞힌 관중들에게는 홍삼 데일리 제품과 빼망팔리 등 다양한 홍삼 경품이 제공됐다. 관중들은 열띤 참여로 현장을 달궜으며, 이를 통해 진안군의 특산품과 축제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 연계 홍보는 진안홍삼축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축제 성공 개최는 물론, 진안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마이산북부에서 열리는 2025 진안홍삼 축제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가을 축제 한마당

피어나다 남원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로봇

2025. 10. 16 ~ 10. 19 |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2025 남원 국가유산가요제

2025. 10. 16 ~ 10. 19 | 남원 광한루원 일원

제33회 흥부제 Heungbu Festival

2025. 10. 17 ~ 10. 19 | 남원 사랑의광장 일원